주유소가 '텅텅'… 기상 악화 때마다 공급 '비상'

풍랑경보 발효 3·1절 연휴 동안 유조선도 발 묶여
"4일간 휘발유 없이 주유소 운영… 매출 피해 막심"
이란사태로 유가 불안정까지 덮쳐 업계 우려 커져

"3~4일 정도 휘발유가 거의 없는 상태로 주유소를 운영했어요. 주유소에 기름이 없다고 하니까 손님들도 놀랐죠."

제주가 도서지역이라는 지리적 한계로 인해 기상악화 때마다 기름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2일 도내 주유소 업계에 따르면 A주유소는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받지 못해 지난 5일 저녁부터 9일 오전까지 휘발유가 동난 채로 영업했다.

A주유소 관계자는 "일주일 치 휘발유 5만ℓ를 주문했는데 정유사가 기름이 없다면서 7000ℓ만 공급해 줬다"며 "경유는 저장탱크가 커서 비축해 둔 양으로 판매가 가능했지만 휘발유는 바로 바닥이 나서 손님들을 계속 돌려보내야 했다"고 토로했다. 이어 "하루에 차량 300대 정도가 주유소를 이용하고 이중 70% 이상이 휘발유 고객인데 3~4일 정도 휘발유 손님을 거의 못 받았다"며 "휘발유만 따져도 하루 1500만원 손해고, 더 큰 문제는 손님들에게 '기름 없는 주유소' 이미지가 굳어지는 것"이라고 말했다.

같은 석유판매대리점으로부터 기름을 공급받는 B주유소도 비슷한 상황을 겪었다. B주유소 관계자는 "2만ℓ를 주문했는데 4000ℓ, 7000ℓ 이런 식으로 조금씩 나눠서 공급이 됐다"며 "다행히 간당간당하게 버텼지만 앞으로 비슷한 상황이 잦아질까 봐 걱정이다"라고 말했다.

이 같은 상황은 제주 전 해상에 풍랑경보가 내려진 지난 3·1절 연휴 동안 기름을 운송하는 유조선이 출항하지 못하면서 발생했다.

C석유판매대리점 관계자는 "당시 해상 날씨가 안 좋았고 정유사 본사 석유공장과 제주 물류센터에 모두 재고가 없어서 수급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았다"며 "적은 양의 기름을 주유소 전체에 나눠야 하니 조금씩 공급할 수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정유사 본사 공장에서 제조한 기름은 유조선을 통해 통상 2~3일에 한 번씩 제주에 있는 각 정유사 물류센터로 운송된다. 이후 도내 석유판매대리점 3곳이 각각 계약을 맺은 주유소에 기름을 공급한다.

하지만 지난 연휴처럼 2~3일 동안 악기상이 지속된다면 제주는 기름을 공급받을 길이 아예 막히게 된다. 특히 태풍이 잦은 여름·가을철에는 기름 공급 비상이 종종 발생한다고 관계자들은 입을 모았다.

여기에 최근 중동 지역의 긴장이 고조되는 이란 사태까지 겹치면서 도내 주유소 업계의 시름이 깊어지고 있다. 국제 유가가 출렁이면서 수급 불안에 대한 우려도 커지기 때문이다.

D정유사 제주물류센터 관계자는 "악기상으로 기름 공급이 멈춘 시기와 이란 사태 발생 직후가 겹치면서 유가 불안정에 대비해 기름을 채우려는 운전자들이 늘어 기름 품귀 현상이 발생했다"라며 "기름은 국제 정세와 직결된 분야이기 때문에 수급 차질이 반복되지 않도록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했다.

양유리기자 glassy38@ihalla.com

옛 경찰청사 활용해 도청 주차난 해소

도, 관용 등 123대 우선 배치

제주도가 옛 경찰청사 부지를 활용해 청사 내 주차 문제를 개선한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오는 16일부터 옛 경찰청사 부지에 관용차량 104대, 영아 양육 차량 12대, 기타 차량 7대 등 123대를 우선 배치한다고 12일 밝혔다.

그동안 도청사 내 주차 공간 부족으로 이중주차와 보행공간 점거 등 무질서한 주차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돼 왔다. 제주도는 하반기 외부 부서 이전에 앞서 주차 여건을 먼저 개선해 도청 방문객과 직원들의 불편을 줄이겠다는 계획이다.

옛 경찰청사 부지 확보는 현재 국·공유재산 교환 방식으로 추진되고 있으며, 제주도의회 의결을 거쳐 하반기 중 소유권 이전을 완료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상반기 중 옛 경찰청사 본관동 리모델링을 마친 뒤 건설회관 등 외부 민간 건물에 분산돼 있는 9개 부서(약 250명)를 하반기에 이전할 계획이다. 부서 이전이 완료되면 여러 건물을 오가야 했던 도민들의 행정 이용 불편이 줄고 업무 효율성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김인영 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기적으로 주차 여건을 개선하는 한편, 도청사와 옛 경찰청사 주차장을 통합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 개발 용역 추진

실효성이 높은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용역이 진행된다.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위원회는 지난 11일 위원회 세미나실에서 2028년 전국 자치경찰제 전면 시행에 대비한 '제주 전담조직(TF) 운영단'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회의는 '제주 자치경찰제 운영모델 개발' 정책 연구 용역 추진을 위해 마련됐다. 연구 용역은 제주연구원이 진행하며, 제주 특성을 반영한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체계적으로 설계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박영부 제주자치경찰위원장은 "전국 최초로 자치경찰제를 시행한 제주의 숙련된 역량을 살려, 제주연구원과 협력해 현장 실효성 높은 제주형 자치경찰 운영모델을 개발하겠다"며 "자치경찰제 전면시행에 차질 없이 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한산한 주유소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검토 중인 12일 제주시 안덕면 동광리의 한 주유소가 한산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강희만기자

유가 불안정 틈탄 불법 위험물 저장·취급 차단

제주소방, 위험물 취급시설 등

제주소방안전본부가 중동 정세 불안과 유가 급등 심리에 편승한 불법적인 위험물 저장·취급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도내 위험물시설 집중 안전관리를 추진한다.

이번 대책은 최근 고유가 상황을 틈타 허가 없이 지정수량 이상의 유류를 보관하거나 안전기준을 무시한 채 위험물을 저장·취급해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및 폭발사고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추진된다.

대상은 도내 대량 위험물 저장·취급 시설, 주유취급소 및 일반취급소 등이다.

주요 추진 내용은 ▷취약시설 유관기관 합동 출입·검사 ▷대량 위험물시설 등 관서장 중심 현장 맞춤형 안전컨설팅 ▷위험물 관계인 대상 불법행위(지정수량 이상 임의 저장 등) 근절 및 화재예방 집중 홍보 등이다.

양유리기자

봄철 전정 중 손 다치는 농민 속출

전정가위 사고 3~4월 집중
최근 5년 간 부상자 228명
올해 17명… 작년의 2배 ⬆
도소방본부, 주의보 발령

봄철 농번기 제주에서 감귤나무 등 과수 전정(가지치기)·정지(가지고르기) 작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전정가위로 인한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올해는 사고 발생이 작년보다 갑절가량 늘어나 제주소방이 주의보를 내렸다.

12일 제주특별자치도 소방안전본부에 따르면 최근 5년간(2021~2025년) 도내에서 발생한 전정가위 안전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28명에 이른다. 연평균 45명 이상이 전정가위를 사용하다 다쳤다.

전정가위 사고로 인한 부상자는 2021년 24명, 2022년 35명, 2023년 50명, 2024년 59명, 2025년 60명으로 매년 늘고 있다. 사고는 과수 전정·정지 작업이 집중되는 3~4월에 많이 발생했다. 전체의 48.7%(111명)에 달한다.

연령대별로는 70대가 33.8%(77명)로 가장 많았으며 60대 32.9%(75명), 50대 16.7%(38명), 80대 이상 10.1%(23명) 순으로 나타나 고령 농업 종사자의 사고 위험이 높았다. 농업 종사자가 많은 제주 동·서부 읍면지역(74.6%·170명)에서 가장 많이 발생했다.

부상 형태는 손가락 절단 69.7%(159명), 열상 30.3%(69명)이었다. 부상 부위는 오른쪽(23.7%·54명)보다 왼쪽 손가락(76.3%·174명)을 다친 환자들이 많았다.

올해 들어서도 지난 10일까지 17명이 다쳤는데,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8명)보다 갑절 늘어났다. 사고가 잇따르자 제주도 소방안전본부는 이날 농번기철 전정가위 안전사고 주의보를 발령했다.

전정가위는 날이 날카롭고 절단력이 강한 기계 특성으로 인해 손가락 절단 등 중증 외상으로 이어질 위험이 크다고 제주소방본부는 설명했다.

특히 가지를 잡은 손이 절단부와 가까운 상태에서 작업을 진행하거나 보호장갑을 착용하지 않은 채 작업할 경우 사고 위험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에 안전수칙을 준수하는 등 작업자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박소정기자 cosorong@ihalla.com

독자 제보 750-2232

국민건강보험, 보청기 보조금 확대 실시

- 와이덱스보청기 기준금액 131만원 중, 90% 지원(1,179,000원 환급)으로 보청기 제품비용(초기 적합관리비용 포함) 최대 99만 9천원과 후기 적합관리 비용 18만원을 구분하여 지급.
  * 단,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100% 지원(111만원+20만원)
- 구입일로부터 5년마다 1회, 와이덱스 보청기 구입비 지원
- 15세 이하 아동의 경우, 양측에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지원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에 가입한 사람 중, 시·군·구에 등록된 청각장애인
- 청각장애 등록증(복지카드) 소지자(중증~경증)

*와이덱스보청기 구입비 예시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보건복지부령 제715호 인용.

보청기 가격	차상위계층	일 반
정책특가형, 와이덱스보청기 정가 ~~190만원~~ ➡ 131만원	본인부담금 0원 (전액 100% 건강보험공단 지원)	본인부담금 보청기 제품비용 111,000원 후기 적합 관리비용 20,000원 (나머지 90%는 건강보험공단 지원)

※정책특가형 제품은 위의 표에 설명된 것에 한함.

자세한 사항은 와이덱스보청기 제주센터로 문의하세요. WIDEX

보청기 구입 요령, 이것만 알면 후회 없다!

보청기, 소음 환경에서도 잘 들리나?

보청기를 사용하며 불편하고 어려웠던 문제는 보청기를 착용한 상태에서 여러 사람과의 대화가 어렵다는 것과 소음상황에서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다.
조용한 곳에서는 잘 들리지만 주변이 시끄러워지면 대화가 힘들다는 것이 많은 보청기 사용자들의 문제였다. 이런 사람들을 위해 와이덱스 보청기는 주변 환경에 맞춰 스스로 소리를 변화시키는 환경 적응형 프로세서를 중저가의 보급형 보청기부터 탑재하여 환경에 따라 잡음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고 말소리는 선택적으로 크게 증폭하여 소음상황에서도 대화를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한다.

말소리를 더 똑똑하게 들을 수 없을까?

대부분의 노인성 난청인들이 겪는 불편은 소리에 대한 분별력이 떨어지는 문제로 말소리에 대한 변별력이 없다는 것이다. 노인성 난청은 주로 고음의 소리를 감지하는 청각세포의 손상으로 발생한다. 말소리 분별의 어려움을 겪는 난청인은 본인 스스로가 난청인 사실을 인정하기 힘들어 하며 보청기를 사용하지 않으려고 한다.
소리를 분명하게 듣기 위해서는 퇴화된 청각세포로 입력되는 높은 주파수대의 소리를 건강한 청각신경세포에서 잘 들을 수 있도록 소리의 주파수로 대역을 이동시켜, 소리를 듣게 만들어주는 방법으로 주파수전위 기능(Audibility extender)이란 것이 있다.
이는 와이덱스 보청기 만의 고유기술로서 청각세포 손상으로 명확한 소리를 듣지 못하는 분들에게 적용되어 소리를 듣게 만드는 획기적인 기술이다.

보청기는 어떻게 구입해야 하나?

난청을 느끼고 보청기를 구입 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은 4년 미만이 전체 46% 정도 되고, 나머지 54%는 5~10년이 지난 후에야 보청기를 착용하게 되는데, 이렇게 오랜 시간 난청을 방치 후 보청기를 착용하는 경우 보청기를 착용하고도 말소리의 변별력이 좋지 않은 현상이 발생하곤 한다.
이는 뇌에서 어음을 이해하는 부분의 기능저하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따라서 난청을 느끼면 보청기 착용 시점을 가능한 앞당겨야 어음변별력이 더 이상 퇴화되지 않게 된다. 또한 잘 듣지 못하는 상태가 장기화되면 본인의 발음 또한 분명하지 않게 된다.
난청이 의심되면 방치하지 말고 가능한 빨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 난청은 사람마다 그 정도가 달라 정확하게 청력을 맞추지 못하면 소리의 변별력이 떨어지고 소리가 불편하게 들리기도 한다. 따라서 보청기의 제작은 정확한 청력검사를 바탕으로 이뤄져야 한다. 와이덱스의 전 제품은 컴퓨터와 연결하여 조절하는 디지털 보청기이며, 와이덱스의 센소그램 시스템은 보다 정확한 청력보정 방법으로 청력에 맞춰 소리를 조절하여 좀 더 선명한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도와준다.

와이덱스 보청기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잘 읽고 사용하십시오. 한국의료기기 산업협회 광고사전심의 심의번호 2010-GN1160079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청능재활센터 이명전문케어센터
제주시 동광로 4, 삼옥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 위치) 상담예약 064)755.1005
원장 강동우
청각학 박사
산학협력교수
전문청능사
언어재활사